

# 속 기록

- 회 의 명 : 제315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1. 9. 30(목) 14:04~18:10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위원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원재      위원  
              이진희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 1. 성원 보고

**박중관 위원장** : 제315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우리가 대면회의를 언제 했는가를 회고해 보니 3월과 6월에 하고 그동안 대면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9월 위원회를 대면회의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비대면 회의를 병행하여 회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과 상임감사님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안건보고자인 이종국 지원총괄부장과 실무자들, 본부장이 지금 현재 예술가의 집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 유은선 위원님과 박경주 위원님께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회의를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김선옥 노조 위원장이 현재 함께 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의결인 2022년도 정기공 모를 위해서 예술창작본부 각 부의 부장 전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대기 중에 있으며, 각 지원사업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교류부의 김의숙 차장을 포함한 8인의 직원이 현재 영상으로 회의에 참관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위원 12인 중에서 11인이 참석하여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진희 위원님께서서는 참석 예정이시고, 유은선 위원님과 박경주 위원님께서서는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 2. 개회 선언

**박중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중관 위원장** : 사무처장 직무대행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전차(前次)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는 회의자료 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 제313차 전체회의에서는 2건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2건 모두 원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14차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2개의 안건이 모두 원안 의결이 되었음을 보

고드립니다.

####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보고를 받으신 대로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이라든가 2021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긴급지원 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이라든가 2021년 <코로나 19, 예술로 기록> 사업계획(안) 의결, 2021년도 비대면 예술인력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제공모 지원심의 결과보고 등 중요한 회의가 전차(前次) 회의에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과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의결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15차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5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의결안건으로 2022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그리고 보고와 관련하여는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의 적격성 심의 결과보고와 소위원회 활동보고 그리고 TF활동 보고 등이 보고사항으로 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사업 추진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본 안건은 이종국 지원총괄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예, 안건번호 제909호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부터 계속해서 매달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사전에 40여 차례 가깝게 위원님이 참석하셨고 사업별로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듬어진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 입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4개의 파트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보고를 드릴 공모사업의 전반적인 주요 추진방침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아울러 오늘 야간까지 예정되어 있는 설명회 촬영 일정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사전 검토의견을 주신 것이 있는데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내용과 어떻게 수정·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탈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하고 확정된 대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 총 사업예산이 드디어 3,200억 원대를 돌파했는데요. 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전체예산 대비 약 24%에 해당되는 776억 원 정도의 예산이 2022년도 공모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별 공모예산은 10페이지까지 이어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는 2022년도 공모사업의 주요 방침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크게 3가지 방향에서 가장 중점적인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시백 위원님과 홍태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2페이지와 관련된 예술생태계의 안정망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처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문조사나 고충상담과 같은 능동적 예방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당연히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신청이기 때문에 선정된 후에 각종 오리엔테이션과 실제 교부금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을 지원하면서 이미 사전에 이런 예방활동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관리를 할 때 이 부분이 그냥 요식행위로 교육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의 효과가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이진희 위원님과 홍태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 기금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관련된 관리규정의 일환으로도 충분히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정이 되고 나서 교부할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영유아돌봄비를 말씀하셔서 전격적으로 도입이 되었고 실제로 2021년도 진행사항을 보니까 어느 정도 알려져서 적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되고 나서 해당 예산편성 시에 이런 경력단절 여성의 참여 여부를 조사해서 실태들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도 공고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미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청년참여예산제가 이 사업에 신규로 도입이 되었다는 점을 사업설명회 공고 책자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공모대상 사업은 저희가 8월과 9월 중순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정시공모 자체를 1차와 2차로 구분해서 실제 사업 결과가 발표되어 예술가들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1개의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33개를 10월 14일부터 하는 1차 공모로 하고 2차 공모를 12월 말부터 하는 8개 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예술이나 국제교류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공모는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나 대대적인 사업개편이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사업의 운영 구조상 연도 중반에 이루어지는 10개의 사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022년도 공모는 3차로 나뉘어서 진행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해당 장르별로 별도공모와 1차와 2차 공모 여부에 대해 설명 드린 공모예산과 함께 15페이지까지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이후에 세세한 세부 사업별로 해당 장르별 위원님들과는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요약해서 개편내용 중심으로 비교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나 세부 내용과 실제로 논의되었던 것이 다르게 표기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공모 책자에는 담기지 않고 오늘 영상으로 제작될 부분들에 활용이 돼서 예술가들이 공고문을 읽었을 때 “도대체 작년과 뭐가 달라졌는지?”, “뭐가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두 번째 파트인 추진일정과 방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말씀드린 대로 3차에 걸쳐서 나눠 진행하고 기존 접수방법 등은 동일합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상 스트리밍으로 생중계를 했지만 이번에는 사전제작을 통해서 일괄 오픈을 하면 예술가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라든지 관심 있는 사업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일주일 후에는 자주하시는 질문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잘 몰라서 못 했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는 온라인 유튜브와 각종 미디어채널에 오늘 의결해 주신 사항을 기반으로 10월 13일 수요일 오후에 업로드를 해서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원신청 공통 조건은 전년도와 동일한데요. 다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해를 거듭할수록 추가적으로 붙다보니까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불공정행위나 성희롱·성폭력 관련된 내용들. 작년에 강화되었던 사항들을 조금 더 눈에 띄도록 재배치를 했습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없더라도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해당 후보자 선정여부는 위원회 회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부적격 사업이라든지 기타 중복신청제한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번 항목으로 27페이지입니다. 지원신청과 결과발표, 이의신청 처리 절차는 저희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특히 저희 지원심의 옴부즈만 이의신청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사전에 더 공개해서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모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대훈 문학지원부장이 이시백 위원께서 사전에 질의하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문학지원부 사업 안전과 관련해서 이시백 위원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이 2가지로 요약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문예지 지원사업이 다년지원으로 확대한 것으로만 표기가 된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맞고요. 저희가 문예지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큰 틀에서의 사업변화, 즉 다년지원 사업 확대라는 변화의 초점을 맞춰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당 페이지가 붙임5 자료의 5페이지에 있는데요. 문구 수정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년 지원을 3년간 다년 지원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년 지원을 유지하되 다년지원의 트랙이 신설되었다는 내용으로 문구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의견이 다년 지원과 단년 지원의 비중에 있어서 단년 지원을 우선적으로 중요한 비중으로 두되 다년지원은 우수한 문학단체들 중심으로 좁혀서 안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 사실 고민이 있었습니다. 단년 지원보다 다년 지원의 비중을 높인 이유는, 최근 5개년 문예지 지원사업의 지원 선정결과를 살펴보면 4년 이상 지원을 받았던 단체의 비중이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문예지들이 계속 지원을 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

려해서 다년 지원의 비중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내용을 수정한다고 하면, 신청단체들이 어쨌든 단년 지원이든 다년 지원이든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신청하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될 텐데요. 일단 큰 틀에서는 지금의 비율을 두되 이것을 신청비율에 근거해서 탄력적으로 심사단계에서 적용해서 지원결정을 할 수 있는 안을 구체적으로 심의단계에서 마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둘러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미처 수정되지 않고 전달된 것이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별도사업 공모에서 205페이지와 207페이지, 209페이지 붙임5 자료를 보면 표기상 오류가 있습니다. '분기'로 표시가 되었는데 애초에는 발표형 지원사업을 분기별로 진행하려고 했다가 '반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를 '반기'로 수정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간형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원래 2021년 11월 말까지 작품집 발간 계획이 있는 작가로 한정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12월까지 그러니까 2021년을 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수정되었는데 그 부분이 미처 표기상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바로 잡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하는 도중에 이진희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회의가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4시 20분 이진희 위원 회의참석)

**박종관 위원장 :** 홍태림 위원이 질의하신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해서는 이종국 부장의 보고 중에 언급이 있었는데 혹시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없으시면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듣기 전에 정대훈 문학지원부장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 이시백 위원께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시백 위원 :** 예, 문예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의결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세부 시행(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면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3년간과 단년을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다만, 그럴 경우에 기존의 단년간 지원과 새로 신설되는 다년간 지원의 비중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문예지는 그동안 문학 분야에서 현장이라든가 여러 창구를 통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분야이기 때문에 현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기존에 3년간 지원하는 연속지원이 자칫 어떤 활동의 우수성만을 담보로 할 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재정이 큰 문예지를 운영하는 주체들에게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힘겹게 문예지를 꾸려나가는 분들과의 간격을 더 심화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년간의 비중을 다년간보다는 과도적으로라도 높게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예지 관련해서 앞서 자문회의에서 개진되었던 3년간 연속지원을 받았을 경우 이후에 1년이라도 잠정적으로 안식제 비슷하게 하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시행(안)에 이것이 반영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질문과 관련해서 회의자료가 본 자료 외에 별첨으로 공모사업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예지와 관련된 사항도 설명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면서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전체 위원님들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놓여 있는 태블릿 내 PDF로 된 자료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설명’이라는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 세부 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참고로 문예지발간지원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사업설명자료가 있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일단 질의를 하셨으니까 추가 답변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시백 위원** : 지금 보충한 자료를 봤는데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단년간이 1억 원 정도의 예산이고 다년간이 6억 원이라고 해서 오히려 제가 제기한 우려점이 심화될 것 같은데요. 앞서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중관 위원장** : 예,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대훈 부장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년지원 체제로 전환을 하는데 예산 배정 상 약 80%가 다년지원으로 안배가 되어 있고요. 단년지원이 나머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는 최근 5개년 간 지원했던 문예지를 보니까 그중에 4년 이상 연속 수혜를 받았던 문예지들이 80% 정도가 됩니다. 그 문예지들은 그동안 지원심의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심의기준에 근거해서 “그래도 안정적이고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그 문예지들이 일단 다년지원의 트랙에 안착하는 것이 안정적이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대략적으로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으로 주셨던 것은, 이를테면 문예지들 중에서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상업적 출판과도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재원 등 운영여건이 양호한 문예지들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나뉘었을 때 애초 저희들이 문예지를 지원하고 있는 취지에 맞는지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문예지를 통해서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하는 원고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예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작가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문예지들이 대체로 소설이라든지 다른 장르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만약 그러한 문예지들이 배제될 경우 장르간의 형평 등이 상당부분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년제로 진행을 할 때 3년 연속으로 할 때 3년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안식제를 두는 것을 고민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 문제가 뭐냐 하면, 3년 연속지원을 하고 그 다음해 첫해에는 상당부분 공백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원을

받았던 다수의 문예지들이 안식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문예지들이,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우수성이라든지 문학의 장에서 기여도 보다는 차선의 결정이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답변을 들었고요.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년 6억 원, 단년 1억 원의 안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번 다양한 통로로 3년 연속 지원의 안식년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된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쟁점이 하나 올라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요. 다른 안이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만 한해의 농사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강조해야 할 지점과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대로 공고가 나갔을 때 현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등 다양하게 살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도와 2022년을 비교해서 어떤 면이 달라지는지? 어떤 강조점이 있는지? 어떤 정책적 중요도가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 하는 과정도 필수적으로 필요했는데요. 쟁점으로 바로 넘어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태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죠. 이것도 답변이 되었나요? 그러면 2가지 답변이 된 것이고요. 예술창작본부장이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어떨까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아마 위원장님께서 이종국 부장이 빠르게 보고를 하다 보니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11쪽 2022년도 공모사업 주요 방침이 설명을 드려야 할 핵심 방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개선TF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왔던 내용을 2022년도 중장기계획에 넣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기획조정부와 끊임없이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짜기도 한 것입니다. 그중에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꾸려왔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저희들 전략개발팀에서..... 여기 회의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동영상으로 사업설명을 제작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보면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면서 “사업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략개발팀에서 ‘C.R.E.A.T.E’라고 하는 앞부분의 영어 이니셜을 따서 6개를 정하고 대내 환경으로는 ‘E.C.O’라고 하는 이니셜을 땀는데요. 일전에 한번 깊게 심도는 없어서 간담회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서 11쪽의 주요 추진방침이 나왔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내 환경으로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역부분, 환경, 고령화, 기술고용 등이 6가지 환경적 진단이 되었고요. 대내 환경으로는 인권보호차별금지, 예술현장참여확대, 투명한 공공재원 집행관리 등을 맞춰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방침을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작예산 부분을 증액한 것은 모두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적게 되어 왔던 문학과 시각예술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작년도 사업을 개선하면서 현장에서 사업추진의 안전성을 얘기하기도 해서 저희들이 다년간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연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연을 올려보는 그리고 향유 쪽으로 연결되는 것

까지 고려한 사업의 진행과정별 부분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극 분야 같은 경우에는 창작실험활동지원 말고 사전제작과 관련된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강화를 했던 부분들을 도출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과정을 돕기 위해서 예술현장참여와 관련된 부분으로, 예를 들어 올해도 시범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단계별로 갈 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으면 예전에는 마지막에 위원회를 거쳐서 3단계에서 결정된 부분을 발표했다고 하면, 이럴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가·부까지는 올해는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최소보장제’라는 말을 저희들이 써왔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갔으면 어떨까 싶어서 ‘지역균형지원제도’로 용어를 조금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같은 경우에도 국회로부터 “너무 적지 않느냐?”. “50개 중에서 4개밖에 없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등의 현장과 국회로부터의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든지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은 뼈대를 유지하면서, 특히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은 지역의 포션을 많이 늘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주단체는 이미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행안부에서 가져가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5년 동안 보장을 해 주는 것으로 이미 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상주단체가 가면서 저희 대한민국공연예술제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갈 것이고요. 특히 민간공연장활성화 관련된 대관료지원 등은 지역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세부적으로 디자인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망의 경우 김천문예회관의 사고가 있었고, 올해는 배리어프리 예산까지도 구체적으로 집어넣으면서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경력단절 예방이나 성희롱·성폭력, 상해보험의무가입 등을 했습니다만 고용보험부터 배리어프리까지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쪽을 조금 더 넓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하고 작년부터 준비했던 부분들을 방향으로 설정해서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공모사업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하시면서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것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의 사업설명자료 68쪽을 보면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70쪽에 보면 중장기사업이 올해 예산이 늘어서 7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가지에 대해서 지금 결정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요. 기존 단체의 지원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데 몇 %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소 얼마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면지, 또는 중장기단체지원 사업에 대해 기타사업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홍승욱 부장께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태블릿에 설명자료가 담겨 있으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그 문제 제기는 논의를 이어가도록 할 것인데요. 별첨으로 나눠

드린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준비경과 추진계획 보고를 참고하시면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요.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공모사업설명자료 PDF파일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진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작의 규모를 넓히고 예술의 용도와 쓰임새를 확장하고 예술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 그 부분의 방점을 우리 위원회가 강조할 예정이구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증액, 다년간 지원의 확대, 사전단계별로 단계를 따라가면서 지원하는 지원방식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차례 설명이 있었습시다만, 심의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모접수결과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행정의 투명함 같은 것을 통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를 저희들이 내년도 정기공모를 통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균형지원제도 문제는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지금 발언을 대기 중인 홍승욱 부장이 이어갈 것인데 중요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역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형태로 예술계가 고사 직전에 있는데 예술생태계안전망이라는 부분들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청되고요. 특히 그 부분의 경력단절이라든지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한다거나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법적보장 같은 것이 제도적으로 안착된다거나 공동체라는 부분을 배려하기 위한 배리어프리 예산편성에 대한 중요한 지점을 포진한 사업계획 등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연도중반에 따로따로 집행되던 사업들을 최소한 정기공모로 할 수 있는데 까지 모아서 가능한 오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추진기간을 현장에 확보해 주는 전략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처장직무대행이 이야기하고 위원회에 의견을 묻기 위한 중장기창작지원과 관련해서 홍승욱 부장의 설명을 연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사업설명자료 6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은 2019년도에 1기를 선정하였고 해당연도가 모두 종료가 되어서 2022년도 정기공모를 통해서 2기가 선정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원신청 유형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기존에 받아왔던 단체에 대한 연속지원, 그 다음에 신규지원에 대한 수도권 소재의 단체 그리고 과거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비수도권 단체에 대해 작게 선정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3가지 유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술위원회가 연극과 뮤지컬을 1개의 장르 안에서 뮤지컬을 부가적인 장르 형태로 지원해 왔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고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뮤지컬을 독립 장르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중요하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쪽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증액을 하면서 비수도권에 대한 단체, 그러니까 그때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이 지역으로 이양이 되면서 지속될 수 있는 유무가 분명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점들을 핵심적으로 다뤄서 기재부를 통해서 20억 원 정도를 추가 증액을 받은 사업입니다. 70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기존 단체의 연속지원과 수도권 단체와 비수도권 단체에 대한 비율들을 일정정도 정해놓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국의 NPO라든가 다양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기존 단체의 연속지원 같은 경우는 전체비율의 30~40% 정도. 그러니까 최소 20억

원 에서 최대는 30억 원 정도의 규모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신규지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소재의 단체들을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정도로 비율을 정하고자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소재의 단체, 공연장상주단체에서 졸업을 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선정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런 비수도권 소재의 단체들을 20~30%로 최소 14억 원이고 최대는 지원신청현황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간에 중장기창작지원사업과 예술위원회 사업들 그리고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들과의 중복성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개 문화재단과 계속해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통일될 의견이 온 것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과 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의 중복단체 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모두 의견을 모아주셨고요. 그래서 이번 공모에도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으로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술위가 하고 있는 창작산실 올해의신작과의 중복 여부 문제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70억 원 정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50개 단체 내외를 선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해당 단체가 3년간 이 금액 외에는 신작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대한민국을 가장 대표하는 공연예술 단체들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를 벗어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우수작품 제작지원 사업이라든가 예술위원회가 하고 있는 '올해의 신작'에 지원신청해서 선정되어 운영되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3년간 기준으로 봤을 때 공연장상주단체 140여 개의 단체 중에서 6개 사업 정도가 선정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예술위원회 사무처에서는 일단 현장의견의 수렴을 통해서 '올해의 신작'과는 중복이 기능하도록 하자고 해서 그렇게 사업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약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전체예산이 49억 원으로 시작된 중장기창작지원이 70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받았던 이른바 지역생태계에서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가능성이 있는 단체들이 이 지원제도에 진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상대적으로 생기는 소외감 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이것은 지역최소보장제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한번 지정되면 3년간 계속 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하다가 2022년도에 신규 단체를 뽑을 때 기존 단체 중에서 30% 정도를 잔류시키고..... 이것이 맞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나머지 단체 중에서 20~30% 정도 지역의 몫을, 이른바 지역할당제라고 하는 것은 신청률 대비 선정률을 의미하니까 신청률을 보면서 선정률을 결정하되 대략 폭을 20~30% 정도로 본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신규 단체를 새롭게 선정한다는 것이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제도 안에서의 중복의 문제인데요. “공연장상주단체와 중복을 할 것인가?” 이것은 공연장상주단체를 거쳐서 중장기창작지원으로 가고요. 이런 형식으로 점점 단체들이 안정화 되고 발전하는 제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중복을 피하는 게 어떠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산실의 신작과 관련해서는 중복을 허용해서 역량 있는 단체들이 정말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오픈하는 게 어떠한 의견을 주신 겁니까.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요약을 진행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연예술과 관련된 부분이니 위원님들께 의견을 주실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먼저 의견을 주시죠.

정유란 위원 :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원유형에 기존 단체의 연속지원과 신규지원의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유형이 3등분이 되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비율을 꼭 지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이 내용은 일단 사업설명 자료에서는 빠질 겁니다. 오늘 위원회 의결을 받기 위해서 참고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도 이 정도의 기준은 의결해 주셔야 지원신청 접수현황을 고려해서 이후에 심의를 통해 선정할 때 저희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시공모 때 내용을 넣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정유란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내용인 것이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설명 자료가 나갈 때는 이 비율은 빠질 겁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배정하게 될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신청비율이 결정된 바가 없으니까 신청을 받아야 비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그래서 저희도 신청현황을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이고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이상의 신청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적어도 이 정도의 기준 안에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유란 위원님 답변이 되셨죠?

정유란 위원 : 예, 이해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현재 사무처장직무대행과 공연예술부의 홍승욱 부장이 재의한 대로 연속지원하는 단체 그리고 신규로 새롭게 진입하는 단체들 중에서 일정한 몫으로 지역비를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최소보장제를 적용하여 사업을 선정한다는 정도로 의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연장상주단체와는 차별 있는 정책을 쓰면서 중복을 시키지 않고 창작산실 신규사업은 중복을 시켜서 역량 있는 단체들이 국가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훌륭한 창작 작품을 만드는 통로를 열자고 하는데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이해를 할까 합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가 질의나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장기창작지원인데 내년도에 지역으로 이양되는 것으로 결정된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연장상주단체는 140개 단체가 있는데 평균지원액이 6,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저희들 사업은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많게는 2억 원 이고요. 그래서 시도의 공연장에 계신 분들은 사다리 역할로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무소에서 다시 중장기창작지원으로 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움을 드린다면, 이러한 비슷한 해외의 사례가 잉글랜드아트카운실에서 모든 문학, 시각, 공연예술 전 장르를 포함해서 단체로 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대량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1~2억 정도가 되는 밴드에서는 70%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30%가 신규 진입을 하고요. 이것보다 높은 밴드에서는 80%가 유지되고 20% 정도가 신규 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억 이상이 넘는 큰 밴드에서는 95%가 유지되고 5%가 신규 진입을 합니다. 해외의 사례가 꼭 저희들과 맞지는 않지만요. 말하자면 하나는 사다리 역할을 할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기존 단체가 자립되지도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요구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국제교류사업이라든지 창작산실의 신작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현장에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은 17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창작지원이나 활동지원 사업이 17개 시도에도 작은 규모지만 있어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체들을 키운다고 하는 것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작산실의 신작까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부분을 현장이나 내부의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보니까 평균 6,000만 원을 받는 상주단체도 최근 3년간에 걸쳐서 5개 단체가 6개 작품으로 창작산실을 받은 예가 있고요. 중장기창작지원단체도 5개 단체가 최근 3년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래 올해 세부적으로 디자인을 해 보려고 리서치를 내부적으로 했더니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한데 과연 2억을 받거나 1억을 받았을 때 어떤 단체가 1년간 활동을 할 때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 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유란 위원** : 일단 타 보조사업의 중복신청 가능 여부의 하단에 보면 “타 보조사업에서 중장기창작지원 선정단체에 대해 심의 결격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중장기지원과 창작산실 그리고 상주단체지원 사업 등과 관련해서 작년에 사업혁신TF에서 자문을 받고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던 지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이 중장기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명확하게 단체가 창작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고 사실 다른 지원 사업은 다른 창작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명확히 다른 트랙이라고 봐야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복지원을 받는 단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저희가 사전에 이것을 차단하는 형태로 설계가 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의 목적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제도를 준비한 쪽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지금 70쪽의 가운데 있는 박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신 거죠? 타 보조사업 중복신청 가능 여부요.

**정유란 위원** : 여기에 “심의 결격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라고 적혀 있어서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70쪽 가운데 있는 박스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유란 위원** : 예, 맞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신청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타 보조사업에서 중장기창작지원 선정단체에 대해 심의 결격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당연히 동일 콘텐츠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예술위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수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이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중복신청을 했을 때 탈락이 조금 더 많이 되겠다.”,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메시지처럼 들린다는 말씀이라서 이 내용은 문구를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다 분명히 의미가 드러나도록 문구를 수정해서 대안을 내줘야 합니다. 의결을 하려면 저희들 안이 성안이 되어야 하니까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지금 홍승욱 부장이 얘기를 했던 부분은 위원회 공통사항으로 같은 작품에 대해서는 A보조사업, B보조사업, C보조사업 등 중복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고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사항에 대해서 표시를 한 것인데요. 우려사항까지 표시할 것은 없고 그냥 지우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 부분을 침삭하는 것으로 오해를 덜 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개별사업을 심의할 때 모두 고려가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고문 단계에서 오해가 적게 공고하는 게 맞으니까요. 지금 문구를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고요. 저도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할당제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제도는 당초에 50여 개의 단체가 최초로 선정된 이후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역의 몫을 강조하거나 할당제 등을 동원하게 되면 수도권 역차별이 여전히 걱정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목표를 잘 설정해서 이른바 예술의 수월성과 예술의 공동체성, 예술의 지역성 모두를 한꺼번에 얻어야 하는 여러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랜 고민 끝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영역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신청서를 보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지역최소보장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골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시백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하시고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는 다년 6억 원, 단년 1억 원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제기였던 3년 연속지원을 받은 단체의 1년간 안식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홍승욱 부장이 설명한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과 관련한 쟁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요. 다만, 신청서 상의 오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자구를 수정하는 부분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과 관련해서는 조금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원재 위원** : 언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상황을 몰라서요. 일단 개별사업 전에 전체적인 의견들은 지금 드려야 하나요?

**박종관 위원장** : 아닙니다. 계속 할 것입니다. 일단 쟁점이 나왔으니까 쟁점부터 해결을 하고요.

**이원재 위원** : 개별 사안의 쟁점 말고 전체적인 공모사업.....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을 요약했던 겁니다. 별지로 나눠드렸던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준비경과 및 추진계획 보고에 나와 있는 쟁점들과 2022년도에 달라진 제도에 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이런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요. 이원재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신 전체적인 내년도 지원사업과 관련된 의견을 듣는 회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정회 중에 있었던 내용을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이 요약하겠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정유란 위원님께서 증장기창작지원 분야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2항을 삭제한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예, 그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문예지 발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년지원 3년과 단년지원 1년에 대한 비율은 신청되는 부분을 봐서 추후에 심의단계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휴식년제 부분은 현재 이 부분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부장이 요약을 했고요. 정유란 위원님, 답변이 되셨죠? 이시백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두 분이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은 대안이 나왔고요. 정회 전에 총론과 관련하여 내년도 2022년도 정기공모 전체와 관련하여 총론의 의견을 내시기로 한 이원재 위원님의 발언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지금 어쨌든 와 있는 설명자료에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고민을 많이 한 것을 전반적으로 내년도 정기공모에 대한 지원방향이나 철학이 최종 자료집 가장 앞부분에 정리가 돼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논의가 되고 부처에서 잘 정리가 된 다이어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가치체계의 구성요소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설명자료에도 개편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계속 지향해 왔던 창작 쪽으로 지평을 넓히는 부분들, 그리고 균형 지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내년도 사업의 방향으로 앞부분에 잘 담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체적인 지원사업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국가를 대표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사업이니까 예술환경이나 방향에 대한 의견들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예,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 9월 초부터 정책소위, 현장소통소위 그리고 7월과 8월에는 계속해서 보고안건으로 드렸던 바가 있고요.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주신 것 중에 다른 것들은 다 공개가 되었고 'E,C,O' 중에 Obligation이라고 되어 있었던 부정수급 관련해서 자격강화를, 그러니까 공공기금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돈을 조금 바꿔서 예술가들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미필적으로 발생하는 실수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강화하고 사전에 친절한 안내들을 하겠다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투명

한 집행에 대한 공고를 강화하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제일 앞에 어떤 논의를 거쳐서 어떤 철학적인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수립했는지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 정관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것만 있었는데요. 그것은 방향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외하고 지금 말씀하신 비전하우스에 입각한 환경 분석 결과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총 53개의 공모사업이 있는데 예술가들이 “사업의 가짓수는 굉장히 많은데 내가 어떤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원회 사업의 형태들, 그래서 향유라든지 인력 등의 항목을 나눠서 1장으로 “우리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편집과정과 오탈자 수정 등의 사항이 있어 별첨 자료로 드렸고요. 오탈자 등은 추후에 수정해서 진행할 것이고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에서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면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해 혼선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수정을 해서 인쇄책자나 홍보영상 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별첨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2차례의 위원회 정기 간담회를 포함해서 7월과 8월에만 20차례 이상 지원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회의 때 전체적으로 총론 범위와 관련된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술의 지평확대라든가 균형지원문제, 안전망 강화 등 2022년 정기공모와 관련된 중점 지원방향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범위의 선정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서 생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마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자료집을 만드는데 의결수순은 문제가 없죠?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예,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도 오탈자 등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구를 삭제하거나 조금 더 명확하게 다듬는 작업들을 하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종 확정을 한 후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먼저 의견을 주셨던 이원재 위원님 답변이 되셨죠?

**이원재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있으면 추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도 좋습니다.

**이진희 위원 :** 예, 추후 자구 수정을 할 때 저는 구체적으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붙임자료 5번의 설명자료 6페이지를 보면 안전망 강화에 대한 4가지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이 확대된 부분과 취지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읽었을 때 든 느낌은 예술위가 강화한다는 느낌보다는 현장이 좀 알아서 예산을 책정해서 강화하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 예술위가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드러나는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올 한 해 동안 했던 일을 반영해서 자구가 다시 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성폭력 예방 같은 경우에는 규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이 규정 작업을 기반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담창구를 내년에 오픈해서 현장을 지원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진다면

예술위가 현장에서 보조금을 편성해서 알아서 하라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잘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술위가 무엇을 할 것인지도 같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의 문제인데요.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은 ‘양육돌봄지원’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니까 실무 쪽에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예, 지금 경력단절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서 문구들을 그런 눈높이에 맞추고 축약하느라 지금 말씀하신 저희 기관의 의지라든지 그동안 논의가 되었던 것들이 빠져 있고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예산의 편성이 가능하다.” 이것에 방점을 두고 문구를 작성했던 것인데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선정되고 났을 때 관련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의지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을 들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저는 앞부분에서 논의했던 것을 들으면서 느낀 게, 의도는 되게 좋잖아요. 단년도와 다년도 지원. 그리고 중장기지원 사업이라고 하고 거기에 새롭게 지역창작자들을 위한 최소 %를 보장하는 것은 다 좋은데요. 제가 약간 의견을 드리자면, 만약 우리가 어떤 제도 안에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할 때는 현장에 확실하게 공지하는 시간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고가 나가면 사람들은 작년 기준대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모안을 보고 그것을 알게 되면 현장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우려가 되는 점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문학창작에서 올해 예산이 좀 늘었잖아요. 그러면 증액된 것은 어느 부분이었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는 이렇지만 앞으로 이것을 단년과 다년지원 사업이나 지역의 %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려면..... 또 지금 말씀하신 경력단절 여성, 아이돌봄 서비스나 여러 가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창작지원금이지만 여기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거기에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차기연도 예산을 문체부나 기재부와 얘기할 때 이것을 오히려 전략으로 가져가서, 예를 들면 문예지발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단년도 지원사업과 장기적으로 3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누고 싶은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다년간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따고 그것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가져가는 게 더 맞지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야 현장도 이렇게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서 예산은 뺐히 있는데 그 뺐힌 예산이 다시 이렇게 단년과 다년 그리고 지역분배 등 여러 가지 창작자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현장소위에서도 저희가 얘기할 때도 취지는 되게 좋지만 결국은 이게 창작지원금인데 오히려 예술가들이 그것을 부담하는 식으로 가니까 부담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현장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문예지 같은 경우에는 현장소위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년으로 할 것이면 이것에 대해 미리 예고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위원님의 의견이시죠? 저희가 답변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요?

**박경주 위원** : 예를 들어 문예지 같은 경우에도 예고기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랬다가 앞으로 이렇게 간다는 예고가 확실하게 있어야 하고요. 문예지를 발간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원단체 등에서 확실하게 자기의 의견을 사전에 준다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예지 같은 경우에는 현장소위에 민원이 많이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작년부터 사업개선TF를 운영하면서 FGI 형식으로 포커스 그룹의 의견을 받고 위원님들께서도 해당 장르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시고 오신다고 저희들이 보고 중점적으로 현장의 얘기를 듣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장기창작지원을 통해서 3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해외도 가고 잘 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 박경주 위원님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전에 바뀌는 부분을..... 말하자면 올해 당장이 아니라 후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시행 시기는 1년의 예고를 두고 그 다음해에 가는 것으로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리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받아들일 것이냐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급박한 부분에 대해서 매번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판단의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현장 공지 이후에 혼란을 최소화 하였으면 한다는 것은 원론 범위에서 매우 옳은 지적이고요. 가능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제도 앞에 놓여 있는 예술현장이 지원신청 단계에서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배려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경주 위원이 구체적으로 예를 든 이른바 신규사업은 새롭게 시작되거나 강화된 부분을 명시해서 이 부분이 바뀌고 강화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예술현장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 공고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원신청 안내서를 만들 때 반영해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현재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 앞부분 모두에 박스를 쳐서 변경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있으니까 그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도로 뽑고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화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친절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박경주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경주 위원** : 그런데 그 취지에 다른 이견은 없는데요. 저는 지금 이의제기가 나왔던 문예지발간 같은 경우에는 현장소위에 진짜 민원이 많이 나왔던 내용이라 이미 굉장히 예민한

것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시백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되게 유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제도가 다년간 지원사업으로 바뀌려면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해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문예지발간에 대한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엔 더 많아졌나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문예지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작년에 사업혁신TF 논의를 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저희가 또 지원단체들의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문예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모든 문예지 주체에게 오픈해서 “내년부터는 다년지원을 할 것입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고지를 하지는 못 했지만 저희가 현장에 그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흘려보냈던 과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예지 지원사업은 아쉽게도 다른 문학 사업들에 비해서 지원규모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니다.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원신청을 하는 단체들이 약 90여 단체이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의 문예지들이 선정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절반 이상 선정되는 문예지들 중에 약 70%이상 80% 가까이 되는 문예지들이 거의 매년 지원을 받다시피 한다면 그 문예지들은 적어도 문학 장르에서 일정정도 충분히 역할을 하는 문예지들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냥 매년 준비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고 그때그때 공모심의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유지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트랙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다년과 단년을 나누되 단년은 그동안에 해 왔던 지원사업의 선정결과 등을 고려해서 조금 좁은 트랙으로 열어두되 그것을 예산 증액을 발생시켜서 조금 다양하고 실험적인 형태의 문예 매체들이 진입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사업개선을 하고자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 작년하고 올해 계속해서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제기가 되었던 문예지 관련 된 내용들은 공정보상이나 불공정과 관련된 이슈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년지원 체계의 핵심이 되는 것은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평가체계에서 공정보상에 대한 노력 등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설정해서 가는 것으로 설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경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박 위원님 답변이 되셨나요?

**박경주 위원 :**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회의시간도 길어졌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공모에는 이렇게 다년지원 사업으로 전환해보는 계획을 하고요. 올해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 대해서 추가 확보가 없었는데 다년간 지원 사업을 넣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계획하셨던 %도 단년지원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그러면 차후년도나 차차후 년도에 다년간지원 사업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한다거나 하는 계획이 같이 있어야만 현장이 받아들인데 있어서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문예지 관련해서 공정보상, 불공정보상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요. 현장소위로 민원이 왔던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문예지들이 자신들이 배제를 당할까봐 우려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 민원이 1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태림 위원** : 이종국 부장님께 여쭙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2022년 정기공모 안내를 온라인으로 할 것이잖아요. 온라인 외에 기초나 광역문화재단 단위들과 협조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녹화해서 온라인으로 송출하게 될 사업안내 영상을 지역 예술가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저희 공연예술부도 마찬가지로 17개 광역문화재단하고 4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요. 사전에 올해 상반기에 이미 제주나 경북재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워낙 저조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이 다..... 소위 말하는 수도권에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신청을 더 하셔서 경쟁력을 확보하실 수 있게 설명해 달라고 해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사전에 그런 정보들을 재단과 모두 공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게 협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4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자들을 수 천 권씩 찍어서 배포를 했는데요. 환경오염 문제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하되 취약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쇄물로 간단하게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정정숙 위원** :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오프라인으로 자료를 주신 것 말고 실제로 설명회도 취약하신 분들에게 진행하기로 준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오프라인 설명회는 아예 계획에 없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올해 지역 쪽에서 신규로 사업을 받아들여야 하는 중장기창작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으로 나눠서 별도로 사업설명회를 다닐 예정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향후 3년간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지금 정도의 크기로 지원이 되도록 하는 작업들을 완성해야죠. 지금 정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홍태림 위원께서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역과의 통로를 최대한 열어서 적어도 정보 사각지대가 지역예술인들에게 존재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으면 합니다.

**정종열 위원** : 주요내용 밑에 보면 비대면 컨설팅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화 상담이나 콜센터로 되어 있네요. 현재 담당자는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보통 전화기 회사에서도 카카오톡 상담도 합시다만, 사실 많은 지원자들이 묻는 지원내용들은 동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카카오톡과 같은 상담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받아서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보면 어떨까 건의합니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예, 정종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챗봇을 이용한 카톡 상담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계에 학습을 시켜야 하는 내용이라서요. 그런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FAQ 같은 것들을 공식화해서 다 띄우겠다는 것입니다. 올

해 도입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고요. 실제 저희 사업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여전히 신청서작성이라든지 우리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회의실 옆에 있는 상담센터가 오프라인으로 있고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원격지원 등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인력충원도 고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방향대로 해서 저희가 자주 하시는 질문들의 유형들을 유형화 시켜서 온라인 홍보 등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소외되는 단체 등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예술기록을 할 때 주요 장르별 협·단체의 분들과 관계들을 많이 트면서 협조도 굉장히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계속 이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유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유란 위원 :** 장르별 자문회의 때 나왔던 것이라서 제가 여쭙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창작산실 중에 ‘올해의 레퍼토리’ 사업이.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지금 저희끼리는 소통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경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연결 문제로 인하여 잠시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정유란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정유란 위원 :** 예, 아까 말씀드린 장르별 자문회의 때 나왔던 우려사항 중에 ‘올해의 레퍼토리’가 없어지고 개편되면서 중장기지원 쪽에서 이런 것들이 보완되는 형태로 변경되는 부분에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년 기준으로 준비를 했던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재공연지원 트랙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조 안에서 보완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게 어디에 반영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창작뮤지컬 분야에서 레퍼토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는 올해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이 다년간 지원의 형태를 통해서 지원이 되니까 단 1회 정도의 추가공연을 하는 것보다는 장기간, 그러니까 3년 간에 걸쳐서 충분히 레퍼토리화 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중장기창작지원 안에 창작뮤지컬 분야를 독립 장르로서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설명 방송콘티에도 그런 내용들을 넣

어서 이번에 제작해서 현장에서 그쪽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한 상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기공모 사업인데 지금 의견을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의결이니까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었으면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경주 위원 :** 공공예술 사업이 예전에는 시각예술로 지원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문화일반으로 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실질적으로 공공예술 지원신청을 한 단체나 개인들의 분야를 보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시각이 좀 많았고요. 물론 문화일반이나 다윈도 조금 있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문화일반’으로 표시하는 게 맞는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윈예술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한눈에 보기의 표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다윈예술 같은 경우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에서는 다윈은 명기가 별도로 안 되어 있지만 가장 가까운 장르 쪽으로 해서 지원신청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별도로 표기해서 올해 나갔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표기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을 드리자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세부사항에 명시해 놓은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서요. 이 표를 보면 “별도로는 없지만 신청은 가능한 것이구나.”라고 다윈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세부 항목을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창작실험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다윈예술이 있었는데 올해만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전제작지원과 비슷하게 창작준비처럼 됐기 때문이에요. 원래 창작실험활동지원이 예전에는 다윈예술사업에.

**박종관 위원장 :** 오디오가 안 들립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위원 :** 창작실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창작준비로 되었으니까 여기에도 다윈예술은 신청이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별도로 독립해서 ‘다윈’ 이라고 쓰기가 어려우시면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에 명시한 것처럼 “다윈예술 분야는 사업 및 단체의 성격을 고려해서 5개 분야 중 가장 연관성이 높은 1개 분야를 택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정도의 별도표시를 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아예 다윈예술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모사업 한눈에 보기에서는 완전히 공란으로 있는 것보다는 대안으로 보자면 ▲표시 등을 해서 신청은 가능하지만 별도 장르가 없는 것은 구분이 된다고 했으면 하는데요.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2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어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일단 창작실험활동지원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작실험활동지원 사업은 이미 다윈예술 리부트 사업 안에 유사 사업들이 이미 있어서 여기에서는 장르가 빠져있다고 알고 계신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는데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창작지원 사업에서는 아까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창작실험활동지원 사업은 리부트 사업 안에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중복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박경주 위원 :** 이것은 성격이 달라진 것 아닌가요? 올해의 창작실험활동지원이 창작준비로 바뀐 게 아닌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아닙니다. 창작실험활동지원 사업은 유지가 되고요. 사전 제작지원 활동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아이디어가 개발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공연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나 쇼케이스까지 진행되는 사업 하나가 신규로 생긴 것입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러면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공연예술비평에 원래 다원이 명시되어 있었고 다원 쪽에서 비평하는 웹진에서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아 왔는데요. 지금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에는 다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누락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스피커가 불량하여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니까 잘 들려야 회의가 진행 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예, 홍승욱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 사업에 원래 다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원예술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문학에 있는 문학비평활동지원에 다원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박경주 위원 :** 아니요. 공연예술 공통에 보면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사업에 다원 지원신청이 가능했구요.

**박종관 위원장 :** 예,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에 다원이 있었는데 빠졌다는 것이죠?

**박경주 위원 :** 예, 2022년에 빠져 있어서 여쭙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사업에 다원예술이 누락된 것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적을 하시면 되니까 거기 말고 다른 데가 또 있나요?

**박경주 위원 :** 아니요.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에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빠진 이유가 뭐가요?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모든 사업에 다원을 집어넣자는 기조로 들렸는데요. 2021년도에 다원예술 사업이 별도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말씀하신 비평이라든지 창작실험활동지원이 기존에는 공연 쪽에 걸다리로 있던 것들을 별도 사업으로 하여 위상을 강화시켜서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락된 것이 아니고 사

업의 구조조정입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심의를 받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신설이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다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은 실제 사업운영의 목적이라든지 사업구조의 체계 상 맞지가 않는 얘기라서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러면 지금 저희가 다원예술 2022년 공모에 비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아직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사업은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공론화 하자고 하는 중이니가 지금은 당연히 논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주 위원 :**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다원예술활동지원은 사실 공연예술로 치면 창작산실과 비슷한 거잖아요. 창작지원사업이잖아요. 특히 비평은 비평을 하는 웹진이나 이런 분야에 있는 단체들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같이 유지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도에 다원예술지원 사업의 예산이 늘지가 않았거든요. 기존 유지이기 때문에 차기년도에 확대가 되고 그 안에 틀이 맞춰지고 비평하는 웹진이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그것은 그래도 되는데요. 2022년까지는 올해 이 사업에 다원예술이 포함되었으니까 다원예술에 특화된 웹진이나 비평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게 올해까지는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에 다원예술을 넣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사업설명자료 75쪽을 보시면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사업 안에는 저희가 별도의 장르를 아예 담지를 않았습시다. 그러니까 공연예술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야는 사실 지원신청이 가능하신 겁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음악, 무용, 연극 등으로 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연예술에 근접한 다원분야도 지원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른 장르를 넣지 않았는데 다원예술 분야를 추가해서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 :** 다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표를 보시면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에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 내용에 들어가면 별도의 문장으로 쓰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눈에 보는 표에 알아볼 수 있게 안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분야를 꼭 신설할 수 없다면 신청을 가장 가까운 장르로 다원예술의 경우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문구를 넣어달라는 요청인 것이죠?

**박경주 위원 :** 예. 그런데 상세내용에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이 넣어달라는 것이고요.

**박종관 위원장 :** 그것과 똑같이 비평연구활성화지원의 경우에도 그렇게 표시를 해 달라는 요청이잖아요?

**박경주 위원 :** 예,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빠졌으니까 이 부분은 다원예술 예산이 조금 더 확대되고 사업 자체의 틀이 잡힐 때까지는 유지가 되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은 알겠고요. 그렇게 표시를 해서 다원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 비평연구활성화지원에 필요성이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열어달라는 의견이지 않아요?

**박경주 위원 :** 예,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분야를 늘리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먼저 전제를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넣으면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도 그렇고요. 그리고 박경주 위원님이 예를 든 것처럼 창작산실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으니까 열어주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전제해야 할 것은 저희가 다원예술과 관련해서는 장르로서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공모 1차, 2차 사업 모두 41개 사업 중에서 12개의 트랙이 신설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019년 이전과 비교한다면 다원을 장르 영역으로 저희가 설정하고, 창작본부장님 12개인가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정기와 별도공모까지 다 합쳤을 때 다원예술도 포함해서 15개입니다.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은 15개 속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가까운 곳에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되면 15개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장르로 명시한 것이 12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원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죠?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아까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예술 같은 경우 모든 장르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해서 모든 장르가 표시되도록 수정·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튼 보완을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위원님 되셨죠?

**박경주 위원 :**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견 감사합니다.

**이원재 위원 :** 다원 관련해서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그 앞 페이지에 지원예산의 공모항목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다원예술이 논의가 안 되어서 뒤에 다원예술 항목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원예술 현장에서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모르는 분들 은요. 지금 같이 토론을 하고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사업예산이 다 있는데 뒤에 보

면 다원은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별도공모가 있고 다원예술 현장과 해서 별도공모 안내가 나갈 것이라는 안내항목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이것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요.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황진수 부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박경주 위원님이 공공미술이 아니고 공공예술사업에 대해서 “왜 문화일반만 특별하게 한눈에 보기 도표에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개념상으로 혼란스러워요. 말하자면 전통이 장르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원도 장르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일반도 마찬가지로 부분입니다. 실제로 공공예술은 모든 전 장르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정리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표기 부분은 황진수 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요. 안 되면 모든 장르로 그냥 실어서요.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예, 표기는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하겠지만 모든 장르가 신청 가능하고, 내용을 보면 공공예술 사업이기 때문에 파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칫 어떤 장르만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전 장르라고 해도 되고요.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고 공공예술을 문화일반으로 표시하면서 의미의 혼돈이 있으니까 종합장르나 전 장르나 혹은 장르를 구별하지 않고 하는 보다 명확한 용어를 써서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그래서 현재 도표 안에, 말하자면 문화일반만 되어 있는데 문화일반도 넣어놓고 모든 다른 장르도 하겠다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선 논의를 종결할까요? 논의를 종결하고 지금까지 의결된 것을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합 안내책자와 영상안내 등을 전체적으로 지원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지평을 확대한다거나 전체적인 균형지원에 애를 쓴다거나 고사 직전의 예술계를 부양하는 창작안전망 등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창작안전망과 관련해서는 규정 개정 작업 등을 포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관점을 예술위가 주도적으로 해서 현장과 함께 제도를 개선한다는 면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돌봄 문제는 보다 정확한 용어가 뭐라고 하셨죠?

**이진희 위원 :** ‘양육돌봄지원’이라고 했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양육돌봄(경력단절)’ 이 정도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과거 용어와 현재 용어를 같이 써서 혼돈이 적게 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진희 위원 :**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중단 여성’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경력단절은 ‘양육돌봄(경력단절)’으로요.

**이진희 위원** : 예, 일단 ‘고용중단’은 일반화된 표현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렇게 수정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요. 문학과 관련되어서는 6억 원으로 계속지원과 신규지원으로 나눠 놓았던 구분을 없애고 신청서를 받고 나서 선정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가능한 공지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친절한 안내책자 제작과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애쓰자고 하는 원론적 범위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연예술비평가 관련해서 다원을 장르로 표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까운 쪽에 신청하여 이른바 진입장벽이 없도록 특별히 표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술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문화일반 외에 장르별 구분 없이 모든 장르가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명기하자는 부분들에 대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원원칙과 지원절차와 관련해서는 그래픽을 동반한 친절한 설명을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을 위원들에게 회람하고 회람을 통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수정한 안이 위원들을 통해서 재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약했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장기창작지원의 경우에는 2항을 삭제하여 혼돈을 최소화 한다는 부분도 의견이 나와서 위원님들께서 의사 정리를 해 주신 것이고요.

**정유란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보려고 합니다. 설명서를 보면 공모대상 사업의 세부 현황에는 연극과 창작뮤지컬이 구분이 되어 정리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페이지를 넘어서 8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한눈에 보기 도표 안에는 연극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극과 뮤지컬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구분된 사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르구분의 연극 옆에 뮤지컬을 칸을 나눠 주실 수는 없나요?

**박종관 위원장** : 이것도 지원총괄부장이 답변을 해 주시죠.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예, 이것은 표의 제목이 자동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어서 그것에 대한 오기입니다. 7페이지에 연극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고 창작산실의 3개 사업 그리고 창작뮤지컬에 4개 사업이 있는데요. 장르가 연극과 뮤지컬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연극으로만 되어 있는데 오기입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2021년도 예술창작지원금은 689억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776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박경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예지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단년지원의 문제이기보다 예산을 증액하여 대응해서 보다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증액할 수 없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후년부터라도 반드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의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하게 의결안을 만들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바로 보고하고 수정을 하는 것으로 일단 위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급하게 준비되면서 아마 전달까지도 오류의 수정이라든가 오탈자 문제는 계속해서 손을 봐야 할 것 같으니까 그 점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단일 의결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결안이라서 시간을 상당히 썼습니다. 의안번호 제909호 2022년 문

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사업 추진계획(안)은 방금 전에 위임한 의견에 정유란 위원께서 추가하신 오류를 수정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을 할까 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위원** : 동의합니다.

**유은선 위원** : 예,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반대가 없고 전원 찬성을 해 주셨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긴 논의를 마치고 보고안건으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 보고안건은 2021년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공연장대관료지원 2차 공모) 지원적격성 심사 결과보고를 포함하여 5건의 보고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적격성 심사결과보고는 공연예술부의 홍승욱 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2021년도 공연장대관료 2차 공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총 사업예산이 17억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신청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15일간 진행이 되었으며 올해연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연한 714개 단체에 866개 공연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290억 원 규모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또 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홍승욱 부장 보고 중에 잠시 정회를 할 테네요. 그 전에 정리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박경주 위원님 혹시 제 발언이 들리시나요?

(라인점검)

**박경주 위원** : 예, 이제 소리는 들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보고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과 관련해서 홍승욱 부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2021년 공연장대관료지원 2차 공모에 대한 지원결정 사항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2차 공모사업의 총 사업예산은 17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신청 접수 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15일간 접수를 받았으며 2021년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간 공연을 진행한 714개 단체에 866개 공연에 대한 지원신청 접수를 받았 습니다. 총 지원신청액의 규모는 290억 원 규모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심사 그러니까 제출한 서류만을 갖고 진행하는 행정심사로 이루어지는 심사 였는데요. 그 지원심의결과 총 612개 단체 715개 공연이 선정되어서 지원결정액은 16억 9,900여 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흥태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던 내용 가운데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에 대한 내용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심사가,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심사로만 이루어진 심사여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적격 단체는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7일 정도의 소명 기회를 두었다고 했는데요. 이 소명의 기간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필 수 제출자료, 예를 들면 이체확인증 등으로 대표자와 이체자 간의 불일치되는 내용 등을 확 인하기 위한 자료가 불충분했을 때는 저희가 추가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7일의 기간 을 뒤서 제출하게 하였고 심의를 한 결과 이 소명을 통해서 선정된 단체들도 있고 탈락된 단체들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3개 부적격 단체는 쉽게 말씀드리면 심사에서 탈락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역시 이게 보고사항이라도 지원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열 위원 :** 전반적으로 저도 궁금했었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원단 체의 수를 보게 되면 전통예술과 다원예술이 너무 적게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2개 장르가 특별히 신청률이 적은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 다. 그러다보니까 다원예술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공간을 통해서 공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등록된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도 공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원의 경우에는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술 분야는 전체적으로 왜 신 청건수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공연의 전체적인 횟수도 적지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 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심사위원 명단이 없더라고요. 명단이 있었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이것은 저희 사무처와 주관처에서 행정심사만 합니다. 이것은 예술 의 수월성 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필수 요구 자료만 제출하고 그 것들이 증빙만 되면 다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심의위원이 없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 행정심사를 합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러면 다원예술과 전통에 있었던 분들은 어떤 결격사유인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죄송합니다. 제가 디테일한 자료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요. 아마 여기에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공연장등록증도 있어야 하고 대관을 했던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날인된 대표자와 이체자가 모두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필수적인 내용에서 달랐을 때는 탈락이 됩니다.

**박경주 위원** : 심의위원이 없는 심사였네요.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네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사무처에서 행정심사만 합니다.

**박경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설명을 드리자면 배경의 취지가 공연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와 대관료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만 되면, 그러니까 아까처럼 결격사유만 없으면 무조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월성 심의가 아닙니다.

**박종관 위원장** : 1년에 여러 번 하면서 서류가 미비하면 다음에 또 신청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회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접수를 할까합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보고안건은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입니다. 제18, 19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제28, 28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제1,2차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3개의 결과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혁신 부장님이 나와 계신가요?

**이원재 위원** : 아니요. 오늘 참석이 힘드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이원재 위원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예. 2번 했는데 지난번에 공유를 한 것처럼 1번은 오늘 통과를 시켰던 안건으로 공유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3개의 워킹그룹으로 기획이나 기술, 예술현대성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것 외에 예술위 현안들에 대한 정책현안을 스크린 하는 작업들을 위원님들과 했고요. 거기에서 소위가 다루어야 할 것과 위원회에 제안을 할 것에 대한 분류 작업과 추후 논의과제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후에 추가 작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이어서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홍태림 위원장님께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홍태림 위원 :** 예, 제28차, 29차 현장소통소위원회 회의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차 회의결과는 대부분 서면자료를 살펴보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했던 안건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일단 28차 회의에서는 문학지원부 쪽과 진행되고 있는 추경 예술로 기록 사업이 중요한 안건이었고요. 이번 추경 기록사업이 긴급지원이기도 하고 문예기금 사업만큼 문체부와 서둘러서 의견을 정리해서 독자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는데요. 다행히 이 의견과 같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9차 회의에서는 지원총괄부 측과 2022년 정기공모 주요 개선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핵심 안건이었는데요. 이날 심의위원 자격검증 절차 강화와 관련된 내용과 행정절차 간소화 그리고 동점자 우선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번 정기공모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적용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해야 할 것들은 차후에 계속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8차와 29차 회의에서 공통으로 다루어진 안건이 대한민국예술원 입장문을 현소위에서 발표한 이후 후속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연말에 아르코대토론회를 작년처럼 열 수가 있다면 여기에서 공론화 작업을 마저 이어나가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 등록된 다원예술지원사업 관련된 상호평가제도 폐지 촉구 건과 관련된 내용이 등록된 것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준비도 23일 있었던 예술인의 소리 측과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중관 위원장 :** 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는 첫 회의를 9월 1일에 하셨는데요. 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예,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임기 동안 주요한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1차와 2차 회의가 진행되었고요. 규정 활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타 안건에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간담회나 자문회의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방안들이 제안되었고요. 핵심적인 논의 내용으로는 20~30대 여성예술인 실태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성폭력 실태 조사와 관련한 부분이 진행되어 있는데요. 젠더 차별 문제가 성별의 차이라는 단일한 사안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건, 학력이나 나이 그리고 권력관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술계에 진입하는 시기, 자원과 권력과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여성예술인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차별에 복합적인 인권침해 상황들을 발견하고요. 제도로써 어떤 개선안이 필요한지를 찾는 연구들을 올해와 내년까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중관 위원장 :** 예, 3개 소위원회의 개최 결과보고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소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연이어서 TF 보고를 받도록 할까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준비회의 개최 결과와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성범 정책혁신부 과장** : 정책혁신부장이 오늘 부재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우선은 정정숙 위원님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그동안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 문화예술위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과제와 혁신TF에서 했던 것을 모아서 그동안 전체적으로 모두 점검을 했습니다. TF소속 위원들이 과제를 2~3개씩 나눠서 점검을 해서 “그 과제들을 블랙TF에서 계속 가져갈 것인가? 사무처의 특정 부서에 과제들을 양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검토가 드디어 끝났고요. 이제 다음 회의부터 구체적으로 남은 과제들, 그러니까 블랙TF에서 꼭 가져가야 할 과제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성범 과장이 회의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을 해 주시죠.

**김성범 정책혁신부 과장** : 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까지 진행된 TF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TF에서 다루었던 과제가 총 15개였고 그 중에 11개 과제는 부서나 타 소위원회로 이관할 예정이고 나머지 4개 사업을 말씀드리면 단순 수탁지정교부사업 정비 및 안정재원 확보, 심의제도 혁신, 예술의 가치 확산, 문체부와 예술위 간 수평적 협력 관계 구축 등 이에 대해서는 부서별 진행사항을 팔로업 하고 TF와 정책혁신부에서 자체 연구 등을 추진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TF와 소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예 다원예술활동지원 동료집단 심의와 관련한 예술인의 소리 측과의 간담회 보고도 같이 받고 함께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다원예술활동과 관련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결과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본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온라인 줌을 통해서 여기에 계시는 다원관련 위원님 4인과 저와 이종국 부장이 참여를 했고요. 예술인의 소리 전체가 들어 오지는 못하셨고 위원회 직원을 포함해서 많을 때는 41명, 적을 때 38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예술인의 소리 측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료처럼 3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Q&A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그림 속에서 답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공론화 방안도 다루었고 향후 심도 있게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진행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예술인의 소리하고는 간담회를 하고 향후에 검토해서 필요하면 예술위를 포함해서 예술현장과 관련한 토론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정확한 명칭을 정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면 워킹그룹 등을 하면 일단은 예술위원회가 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보고드립니다.

다만, 끝난 다음에 제 쪽으로 예술인의 소리 측에서 메일을 주셔서 3쪽 박스에 있는 것처럼 3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일 간담회 내용을 현장과 공유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예술인의 소리 측에 전달하면서 그쪽에서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상회의 원본파일 공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워킹그룹이든 예술위원회 내에서 안을 만들어서 11월에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원재 위원님은 늦게 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10월 내에 이런 부분은 마련을 하자. 그렇게 하고 나서 현장하고 얘기하고 11월에 토론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송시경 본부장이 두 번째로 보고한 간담회 영상 공유 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원재 위원 :**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자면, 제 제안은 저희가 한 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현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고요. 간담회에 대한 기록과 영상이 있는 겁니다. 기록과 영상은 위원회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참여한 분들도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전공개에 동의를 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다른 현장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전 공유가 되고 전달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용 자료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우리가 회의록을 사전에 서로 합의하기로 한 것처럼 그 자료를 공유하고요. 대신 다른 분들에게 공개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만 확인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프로세스를 만드는.

**이진희 위원 :** 위원장님,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저희가 사실 공개간담회였던 게 아닌가요?

**박종관 위원장 :** 공개간담회죠.

**이진희 위원 :** 그렇죠. 공개간담회라서 이것을 기록하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까지는 사전에 합의하지는 않았는데 공개간담회를 전제했고 사실 논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예술인의 소리 측에서도 동일하게 이 영상에 대해서 보관하면서 검토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자격이라는 말이 좀 부적절하기는 한데요. 공동주최자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의 영상물은 배포하지 않는다는 경직된 원칙이 아니라 공동주최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또 라인이 꺼졌습니다.

(라인점검)

**이진희 위원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간담회였고 공공기관의 영상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경직된 원칙이 아니라 공동주최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영상을 보관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공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이원재 위원** : 동일한 입장인데요. 하나만 다른 의견입니다. 공동주최의 단위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서 거기에 사전 동의가 되지 않은 개인들이 있습니다. 이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에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개인들의 동의를 다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한다는 정도로.

**이진희 위원** : 예, 그것을 전제하면 될 것 같아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결론적으로 이런저런 우려사항이 있는 것이죠.

**이진희 위원** : 저는 그 부분을 정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허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주최 성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정숙 위원** : 잠시만요. 그런데 이것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 간담회는 공개를 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포럼은 분명히 아니었고 공동주최도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에 초대를 하는 것이고 그 초대에 응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공동주최의 성격으로 자격이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희 위원**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고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예술인인데요. 그것은 형식적 성격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요. 제안을 하고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추동한 것은 예술인의 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공의 주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정숙 위원** :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맥락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불신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데요. 그랬을 경우 위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 간담회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계속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호평가제도가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느냐?”,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이 있었고..... 그러니까 민주성이나 상호 당사자성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선택했고 이것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에는 반드시 부작용을 염려했었기 때문에 설문조사도 바로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혁신적이라고 생각이 됐느냐?”, “왜 다원을 특별히 선택했느냐?”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100% 잘 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상호평가를 할 때 부작용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심도 있는 문제 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그것을 의결했을 때는 의미 있다는 것에 다 동의를 해서 제도가 도입이 되었던 것인데요. 너무나 심각한 피해들이 야기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장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위원회 쪽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취지 등에는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추가 워킹그룹이나 추가 소통의 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진희 위원** : 예,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면,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고 그날 참여를 하셨던 분들에게 많이 수고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그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영상을 공유하지 않아도 이후에 예술인의 소리가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에 대해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 그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려가 된다면 저는 활용 원칙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편집을 해서 사용할 때는 사전에 공유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우려가 뭘에도 불구하고 서로 신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소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필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정숙 위원** : 예, 그런 부분들을 부가해서 발송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보고라기 보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의록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안 보냈기 때문에 예술인의 소리에 전하면서 가감하실 부분이 있으면 달라고 하고 보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줌 영상회의는 드리되 모든 참여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내부 자료로 아카이빙하고 요약 정리내용 검토 등 목적에 맞게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세 번째 부분을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08분 정회)

(17시 11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본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정리된 안을 예술인의 소리 측에 이메일로 전달해 드리고 예술인의 소리 측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줌과 관련된 영상은 모든 참여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하는 것과 당초 요청하신 목적대로 내부 자료를 아카이빙하고 요약 정리내용 검토에 잘 활용해 달라는 취지로 공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세 번째 부분으로 어떤 식으로 예술위의 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부장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23일 간담회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 중에서 박경주 위원님과 이원재 위원님 그리고 정정숙 위원님, 홍태림 위원님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혹시 보탬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어쨌든 현장의 분들이 마음을 많이 내주셨고 저희 위원회의 담당 실무팀이나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어려운 주제였지만 간담회를 했어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복기하고 성찰하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 스텝을 늦추지 말고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위원들도 많이 도울 테니까 다음 논의를 이어가고 세부적인 것은 모임에서 위원들이 합의해서 진행하고 본부장님이나 사무처와 협의해서 진행하고요. 그 스텝들은 예술인의 소리 분들과 상의해서 다음 스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앞에서 말한 이 위원님께서도 염려가 없으시지만 저는 좀 염려가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나 하면, 그 간담회에서는 저희가 워킹그룹을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고요. 결국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예술인의 소리 쪽은 100% 폐지론이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그 폐지론이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제도를 도입했으니 개선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의 소리가 마지막에는 “개선안을 한번 예술위에서 열심히 만들어 보십시오.”, “현장의 아이디어만 요구하지 말고 개선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회의를 요청하십시오.”라고 하는 안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선안을 예술위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술위에서 개선안을 예를 들어 10월 중순 이전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준비되지 않고 다시 그들과 만나는 것은 오히려 “또 우리들에게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중에서 개선안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 요청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아이디어도 제한적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비판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개선안을 총괄적으로 뽑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위원들이 그것을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과연 예술인의 소리 측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개선안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자신은 없습니다.

**이원재 위원** : 제가 조금 보완을 하면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 아니고요. 다음 논의 프로세스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예술위는 워킹그룹을 제안했는데 워킹그룹에 바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술위가 바로 세부안을 내놓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논의하는 프로세스를 예술위가 제안해 달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스텝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고 가져가서 토론을 하면 논의가 잘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워크숍이나 포럼 같은 것을 제안 드리고, 예술인의 소리에 참여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현장의 분이든 제도개선에 대한..... 추가로 비판과 리뷰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요. 발제도 부탁을 드리고 저희도 얘기를 하면서 몇 차례의 내부 워크숍을 통해 협의된 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도 고민한 것들을 내놓고 예술인

의 소리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도 섭외를 진행되면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안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공개토론회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정정숙 위원 :**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위원님과 제가 그날 회의에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해하는 수준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회의에서 예술인의 소리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다음 회의에서 이런 제도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가지고, 아이디어만 현장에 요구하지 말고 가지고 오시고 거기에 플러스로 본인들의 8가지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다음 회의 때 다시 자세히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는 산을 하나 넘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그런 문제 제기의 해소는 제가 볼 때 20~3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회의 때 “일정만 같이 짚시다.”라고 논의하는 자리에 그분들을 이끌어 내서 회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충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일단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대림 위원 :** 그런데 저도 그날 같이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요. 저도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내용을 이해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오늘 회의자료 말미에 보니까 예술인의 소리 측의 요구 메일 원본이 있잖아요. 23일 1시에 온 것인데요. 아마 저희 회의가 끝나고 바로 보내주신 것이죠. 여기 3번에 보시면 제도개선 프로세스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 주시면 워킹그룹이나 토론회를 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으니까요. 저도 정정숙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워킹프로세스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재 위원 :**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제가 왜 말을 아끼느냐 하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 이야기도 발화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어쨌든 다음 논의를 하자는 것은 합의가 되었다고 봐요. 일정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싸우고 성토회를 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려서 서로 균형감이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얘기하지 못한 문제의식들 그리고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또 다시 토론을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 좋은 제도를 위해 논의하고 참여하며 거버넌스를 생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가면서 논의하고 미진한 것이 있다면 논의를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맥락적으로 제안하고 협의를 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자꾸 이것을 환기시키는 작업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주 위원 :** 지금 사무처에서 요약해 주신 내용에 보면 그쪽에서 간담회 후에 온 메일도 순서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원재 위원님은 3번을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번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그냥 쓴 1, 2, 3이 아니라 순서라고 보고 있어요. 정정숙 위원님이 그날 간담회를 할 때 느끼신 것과 동일하게 저도 느꼈고요. 저희가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 중이어서요. 왜냐하면 워킹그

롭과 거버넌스를 얘기했을 때 “무슨 거버넌스냐?”라고 대답을 한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말씀하신 방안이 어느 쪽이 맞다는 것보다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날 간담회 현장에 계셨던 예술가들 대부분이 본인들이 보냈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대답이 되지 않았다는 게 공통적인 것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 비슷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가 해소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장과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많이 금이 갔는데 그것을 때우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다시 붙이는 것은 정말 공을 들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1번을 충실하게 하고요. 그쪽 메일 원문에서 제안해 주신 것들을 정리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저희가 해명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하고요. 그 단계를 지나가서 예술인의 소리와 저희가 만나는 접점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가 그 이후의 프로세스인 토론회를 할지 워킹그룹을 할지? 원래 있었던 현장과 저희 사업혁신TF와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관계들을 다시 복원하면서 친화력도 쌓아갈지를 다음에 논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원예술 담당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술인의 소리가 요구한 것은 확실해요. 지원자 간에 상호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생각하고 워킹그룹을 얘기하는 것은 그 다음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가지시고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저쪽에서 메시지는 왔기 때문이에요. 상호평가에 대해서 폐지를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는 폐지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이 나면 그것을 직접 저희가 전달할 필요는 없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폐지한다는 입장이라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위원들 간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워킹그룹을 현장과 만드는 것은..... 위원회 안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투표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정숙 위원 :** 지금 박 위원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저는 이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프로세스안을 만들어서 제안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시행해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개선 프로세스(안)에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제도개선을 어떠한 측면에서 하겠다는 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틀을 만들어서 프로세스(안)에 녹여서 보내드려야 예술인의 소리 쪽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응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사무처에 묻고 있었고요. 아니면 우리 위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도개선 프로세스안을 형식적으로 언제까지 5번 합시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예술인의 소리를 모독하는 차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제도개선과 관련된 몇 가지 틀이라도 잡아서 보낼 수 있느냐? 10월 중순 이전에 그럴 준비가 되느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기공모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총괄부서와 예술창작본부 전체가 정기공모에 매진하고 매달려야 하는 입장이라서요. 일

단 TF회의를 한번 가동하셔서 지금 나온 내용들을 TF 차원에서 1차 스크린을 하시고 대응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접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논의가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위원장으로서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4인의 위원님들께서 당일 매우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린 적이 없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진희 위원 :** 오늘 이렇게 보고만 듣고 종료가 되는 건가요?

**박종관 위원장 :** 아닙니다. 저희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TF 개최 결과보고와 관련해서 논의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재 위원 :** 이 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크게 다른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박경주 위원님이나 참여했던 위원들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오해가 없이 진행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간담회에 대한 정리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향후 프로세스(안)을 만들어서 제안해 주는 것을 요구하셨고 그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모임에 위임을 해 주시면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고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께 공유하고 당연히 그 논의는 본부장님이나 사무처와 같이 상의해서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제가 방금 전에 그런 내용으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진희 위원 :** 예, 그러면 이것은 TF에서 별도로 논의를 하자는 제안이시죠. 그러면 제가 말이 길어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이원재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던 그런 내용은 프로세스라는 방식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예술위가 거버넌스라는 것을 할 때 현장의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하고 소통을 할 것이냐는 원칙에 대한 확인 부분을 강조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또 하나 박경주 위원님께서 폐지의 의견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박경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어쨌든 다음에 예술인의 소리와 대화를 할 때는 어쨌든 위원 간 합치된 방향의 목적의식 등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에서 조금 더 상세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여기 보고사항과 관련해서는 접수를 받을까 하는데 이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회의자료에 있는 5개의 보고사항과 추가로 예술인의 소리 측과의 간담회 다원예술활동 동료 집단심의 이슈와 관련한 보고를 모두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6. 논 의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이제는 2개의 논의사항이 남았습니다. 우선 이종국 지원총괄부장께서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규정(안)과 관련한 법률 자문 경과와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논의 후에 홍태림 위원님이 제기한 7기 소위원회 청년위원 모임 청년예술 TF 전환을 위한 논의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예,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규정(안) 관련해서 지금 현재 9월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대로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희 위원님께서 발제를 해 주신 내용과 TF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정리된 내용들을 초안으로 지금 3군데에 법률 자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통과 되면서 그동안의 자문체계와는 또 다른, 거의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다른 안건들과 다르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3군데에서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이슈가 어떤 것이 될지 쟁점 등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체계 안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저희 위원회의 기존 재규정과 관련된 사항들과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도출 중에 있고 지금 그것이 회의자료 96페이지에 있는 법률자문 경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의 지정 로펌과 두 개의 법률사무소 등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여러 건을 다뤄본 로펌들을 섭외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일 자료를 보내드릴 것인데요. 올해 정기공모를 앞두고 지원심의후보자 총 284명의 명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성희롱·성폭력 관련된 저촉사항이 있는지 여부, 그래서 성희롱 추천TF에서 추천해 주신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리뷰를 마쳤고요. 예술인복지재단의 불공정센터에 이 분들 중 신고 된 분들이 있는지 등을 리뷰 했는데 전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블랙리스트 관련된 내용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일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작년에 분기별로 해 보셨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동일한데요. 다만, 개인정보에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USB나 파일로 드리지 않고 심의를 할 때 구축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운이나 스크린캡처가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서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메일을 드릴 테니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2건을 같이 보고를 했는데요. 일단 이진희 위원님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예, 지원총괄부에서 너무 애를 쓰시는 부분들을 잘 알게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매번 여러 부서의 노고를 알게 되는 자리지만 오늘은 특히 그런데요. 저는 어떤 의견이나 하면 법률검토가 진행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요. 법률검토와 동시에 저는 현장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게 동시에 진행된다면 시간을 아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과 현장에서 실제 규정을 적용해서 진행하는 팀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변별력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단체들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실제 이런 규정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시간을 아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겠죠?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실무 쪽에서 의견이 없으신가요?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저희가 8월 말에 TF 최종 리뷰 회의를 하면서 그런 추가적인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 이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률가적 시각에서 하는 것에 플러스 실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요원 감사** : 이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동시검토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예술인권리보장법과 관련해서 시행령이 작성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행령이 작성되어지면 그 안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성희롱·성폭력 관련한 법조항들이 담겨 있잖아요. 거기에서 행정위임을 저희들이 받아야 하는 사항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논의되어지고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때 이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던 고충위원회 설치 규정안을 가지고 지금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도 나중에 행정위임 권한을 장관으로부터 기관장에게 위임권한을 주거든요.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확대되어질 규정안이 들어갈 수 있고요. 내지는 우리가 작성한 규정안에서 축소를 시켜야 될 것도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원안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여성인권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받는 것이 절차적 프로세스에서 훨씬 더 완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정숙 위원** :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님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 예술인권리보장법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하자고 했던 규정은 진작부터 아이디어가 나와서 추진되어 이제 결론이 맺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 자체의 규정으로 속도를 낼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내서 내년 공모사업을 응모하시는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트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권리보장법과 관련된 시행령이 8월 31일 정도에 나왔는데 그 전에도 논의가 되겠죠. 논의가 되면서 확실해지면 그때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년 8월까지 시간을 끄는 것은 예술위원회 성평등지원 소위원회의 그동안 했던 작업들을 전부 무마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기다렸던 예술인들에게도 기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고요. 내년에 여러 가지가 왔을 때 복합적으로 조정해서 다시 개정을 하고요. 이것은 법도 아니고 규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부에서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준비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 규정을 이야기 할 때도 이미 그런 염려는 했었습니다. 앞으로의 조건이나 환경들에 대한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술위 차원에서 계속 논의가 되었는데 규정이 없다는 것이 예술위 자체의 체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가고 추후에 시행령이 마련되면 그때 다시 조정하면서 개정도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감사님이 말씀하셨던 예

술인권리보장법이 내년 9월부터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인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처럼 령이나 규칙에서 정해질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감사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규제 지원 기관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규정으로 정한 모든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 법률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회의 내규입니다. 그러니까 내규로 보조사업을 받는 폭넓은 예술현장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조사를 하고 수사하며 거기에서 예술위원회가 처분을 내릴 수가 있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규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뭐든지 뭘 하려고 하면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무를 설정하거나 세금을 어떻게 하거나 조세 법률주의든 등 원리가 있는데 과연 법률적 체계에 맞느냐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의견이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해서 아마 시간이 많지 않고 다 보셨을 겁니다. 조만간 나올 3인의 법률자문 의견들도 드러서 한번 보신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현장 부분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7기 위원님이 계실 때 다 하셔야 하고요. 더군다나 더 빨라야 되는 게 내년도 심의를 진행하기 전에 정리가 되면 더 좋기는 하지만 다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도 없이 갔을 때 해결을 했듯이 지금도 비밀비재, 현장을 잘 모릅시다만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닌데요. 가급적이면 7기 안에, 그것도 내년도 관련된 심의 이전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체계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가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희 위원 :**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1~2개월 늦어지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려하는 이런 관점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시행령 작업을 보고 저희가 당연히 반영할 수 있는데요. 예술위가 해야 될 것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인권침해와 폭력사항들을 지원사업 안에서 수많은 요구를 들은 예술위가 오히려 시행령 작업에서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었다. 예술위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어적으로 해서는 저희가 문체부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권리보장법을..... 사실 권리보장법이 예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술인을 위한 것이 예술위를 위한 것이고 예술위가 권리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더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율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상상력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는 게 저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1~2개월 지연되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약속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작년 8월 말에 저희가 입장문을 내면서 약속을 했는데 1년 반이 진행된다는 것은 예술위가 얼마나 관료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저도 위원으로서 상당히 성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심스러운 것은 좋은데 방어적이거나 관료적인 접근이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이게 정식적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개별적으로라도 자문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남요원 감사 :** 제가 이진희 위원님의 말씀에 아주 관료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또 정정숙 위원께서 무해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무해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행령 작업은 상당부분 초안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송시경 본부장이 한 얘기와 이진희 위원께서 하셨던 2가지가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시행령 작업을 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한테는 하나의 전범이 있거든요. 스포츠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스포츠인권센터의 준사법조사권이 부여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행령의 범위 안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준조사권, 준사법권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진희 위원께서 지난번에 낸 안에 의하면 우리한테는 전혀 근거가 없는 조사부터 처분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행하는 예술위가 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시행령에 반영시켜야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법률자문을 세 군데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고 우리 위원회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 최소한 시행령 초안은 법률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미 동시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입수해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초안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진희 위원께서 제출해 주셨던 고충위원회 설치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가 반영할 것이냐? 그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조금 더 깊은 논의와 깊은 수준의 의견들을 가져가 주셔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여기까지 논의를 하시면 어떻겠어요.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발제라고 하잖아요. 토론의 길을 열기 위해서 문제점을 올려놓는 것을 발제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먼저 전제할 것이 있다면 성희롱·성폭력 등 이해할 수 없는 정도 수위의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나라 예술계의 구조적 모순을 위해서, 오랫동안 지원사업을 감당해 온 우리 사무처나 위원님들이나 혹은 상임감사님까지도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보는 문제 의식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간담회 때.

**이원재 위원 :**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지금 나온 얘기에서 세 분 모두 이견이 없다는 것.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저희 7기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이의가 없다는 것은 단순 폭력, 성평등 문제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어떤 기관보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한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진희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제안해 주신 거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늦추거나 우리가 다른 것을 사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해 주신 대로 위원회를 법률을 자문해 왔던 로펌이 있을 것이고 이 사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이진희 위원님께서 잘 추천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러면 그 논의를 하면 거기에서 안을 가지고 결정하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려해야 할 변수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고려하자는 쪽으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여기에서 이견이 없으면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인데요. 조금 논의가 부족한 것이라면 10월 간담회 때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정숙 위원 :**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국 부장님 법률자문을 요청했잖아요.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지금 10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정숙 위원** : 10월 중순 예상. 그러니까 검토안을 드릴 때 언제까지 해 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저희가 가급적 서둘러 달라고 했는데요. 저희의 건이 약간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로펌에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프로젝트에서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소해서 빨리 받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박경주 위원님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지난번 고충처리 규정(안)을 받고 저도 이 사안은 빨리 진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비슷한 입장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규정안을 보고나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마침 현장과의 전문가 투트랙을 얘기하셔서요. 일단 변호사들에게 마감시간을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요. 막연하게 지연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현장 전문가들과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저희가 이 규정안을 가지고 의결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전에 이 규정안이 공개적인 경로를 통해서 현장 예술가들에게 보여지는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 규정안을 갖고 이야기 했을 때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저희 감사님이나 성평등 소위의 위원님들 간 방식의 차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감수하고 가야 된다는 것으로. 어쨌든 7기 위원회는 계속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좀 선도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 안을 만들어서 빨리 의결하고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전문가를 체크하고 이 규정을 의결하기 전에 현장 예술가들에게도 공표해서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정숙 위원** : 박 위원님, 그것은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법률자문을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박경주 위원** : 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지금 감사님 말씀대로 시행령 초안이 있는지를 빨리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하고요. 이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여기까지 논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7기 소위원회 청년위원 모임 청년예술TF 전환을 위한 논의와 관련해서 건의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연휴 직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온라인상으로 미리 공유를 드렸던 자료인데요. 먼저 제가 몇 차례 전체회의 때 언급은 했었던 모임

입니다. 소위원회의 청년모임인데요.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예술위 7기 위원 후보자 공개검증 단계에서 여성후보 0명과 청년후보 0명의 사건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현장으로부터 성별, 세대별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위원 선임제도 개선이 요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3차례에 걸쳐 저희 예술위가 공론화를 진행한 바가 있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7기 위원 재공모가 진행돼서 현재의 위원회가 일부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7기 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런 흐름덕분에 위원회 안에서 청년의 비중은 0%에서 8%로 증가했고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에서 2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7기 위원회 이후에도 청년예술인들이 위원회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소위원회에 계신 청년위원들이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현소위의 신민준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는데요. 정책혁신 소위원회와 현장소통 소위원회에 계신 청년위원님들이 비공식으로 소위원회에 청년모임을 구성해서 6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 정도 2주에 1번씩 청년예술의 의제를 예술위 안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6회 간 회의를 진행하였고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가지 청년예술의제를 도출해 봤습니다.

첫째 의제는 예술위에서 청년예술인이 사업대상으로 한정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에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과제는 6가지로 표처럼 도출된 것이 있습니다.

둘째 의제는 청년의제 공론 및 소통이고 이와 관련된 과제는 5가지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셋째 의제는 청년의제 관련 조사 및 연구고 넷째 의제는 청년세대 주류화 정책입니다. 이처럼 모임을 6회 정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저희 스스로 우려가 됐던 게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진행을 한 것이었고, 이렇게 비공식으로 모인 게 지금 현재 있는 소위원회나 TF단위에서는 청년의제를 중심축에 놓고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비공식모임 안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논의내용들이 위원회 안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휘발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지금 모임을 청년모임TF로 전환해서 예술위 차원의 논의 의제로 좀 공식화 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다만, 현 예술위의 상황을 고려해서 TF로 전환한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투여한다거나 사무처 직원이 지원된다는 것은 없이 지금 소위원회 청년모임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TF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을 전제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TF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지금 소위원회나 TF회의결과 등이 공유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년예술TF 내용들도 회의자료 안에 포함되어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게 있고요. 만약 전환이 된다면 7기 위원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해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미 도출된 과제들은 기존 위원회나 소위원회, TF 단위에서 같이 검토할게 있으면 검토를 해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적용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과제는 막바지에 백서형태로 잘 정리를 해서 다음 8기 위원회가 들어서면 8기 위원회에 전달하고 활동을 마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주시죠. 조금 더 축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현재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청년에 해당하는 분들을 별도로 청년TF로 유지하자는 것인가요?

**홍태림 위원** : 예, 모임을 공식 기구로 인준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런데 사실 저희 위원회가 6기부터 7기까지 세대별, 성별, 지역별, 장르별 고른 안배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들이 존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년과 관련해서는 우리 예술위도 청년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중요도를 고려해서 어떤 기구를 만들자는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현재 있는 소위원회 내에서 청년에 해당하는 분들만 따로 모임을 이중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청년TF라는 모임이 자칫 내부 블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요. 조금 확대하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급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안을 다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태림 위원** : 그 고민을 저희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위원회가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부 블록으로 한정되지 않고 조금 더 확장을 하려면 그에 맞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모임을 그냥 TF로 전환하는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저도 그냥 의견이니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전고필 위원** : 100만 년 만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100만 년 만에 얘기를 하는가?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저는 철저하게 여기에서 방외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여기에서 들은 얘기는 대부분 각 장르예술에 관한 얘기입니다. 장르예술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 지역의 소외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여전히 뭐냐 하면, 소외 받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늘 자부심을 갖는 게 7기 위원회의 전체구성이 너무 잘 되어서 사적 이익이 아니라 전체 장르의 예술균형발전을 위하고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일을 잘 한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행된 질서를 하나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미 족쇄를 채웠어요. 한번도 이 상황을 넘어서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처음 소위를 만들 때 소위를 적게 만들어서 일체감을 가지고 잘 해나가자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소위로서의 발전이나 체계의 개선이나 새로운 융복합까지 못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르간, 세대간, 지역간 안배를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정책적인 돌파력에서 상당히 힘겨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를 상대로 한다거나 다른 기관과 상대를 했을 때, 물론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성장해 오고 급발전 하고 있는 장르예술의 융복합 등. 그러니까 국립아시아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컨템포러리 아트를 한다고 했는데 예술위는 그동안의 관점에서 거의 벗어난 적이 없었고 새로운 세대들이 예술위의 문을 두드렸을 때 이 세대들이 와서 정작 문턱이 얼마나 낮냐? 사실 굉장히 높은 문턱입니다. “기성세대들의 예술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탈피하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미래 세대들이 거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장르예술 분야에 대학의 교과들이 다 없

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의 것들만 받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타계할 것인가를 봤을 때 훈련이나 앞으로의 돌파구는 미래 세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교과서적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이번만큼은, 심지어 정책기능에 의사결정 기능도 안 갖겠다고 하는데 굳이 이것까지 단아들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전고필 위원님께서 정리하신 것 같은데요. 이왕 만드는 김에 제대로 청년을 대변하는 TF를 만들면 어떠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 :** 저는 말씀하신 것에 일부 동의를 하는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완결성도 중요하지만 위원회의 에너지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사실 여러 번 논의에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유예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장르 등을 떠나서 위원회 안에서 에너지를 넣어주는, 흥태팀 위원처럼 위원인 분도 있지만 소위에 계신 분도 있고요. 사실 일종의 예술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는 여러 개가 있겠죠. 원로도 있고요. 그게 다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바쁘고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버넌스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정정도의 7기 위원회나 사무처의 거버넌스나 블랙 이후에, 특히 현장소통 소위원회의 어떤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무겁게 가기보다는 일단 그 모임을 지지해 주고 같이 만들게 한 다음에 그 이후의 활동들도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 올라왔는데 “계속 검토를 해 보자.”라고 하면 힘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고맙게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것이네요. 지금 제안한 모임을 출범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확대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정도면 전체의 결론으로 삼아도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정도로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2개의 논의사항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모두 마쳤고요. 차기 간담회와 위원회의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담회 일정 및 전체회의 일정 조정)

**박종관 위원장 :** 폐회 전에 이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희 위원 :**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여기에서 여쭙고 싶고요. 답변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풀지 않은 숙제를 계속 남겨두고 논의하는 게 적절한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월 18일에 이종국 부장님께서 다원예술 공모사업 계획수립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 주신 게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사무처 내에서 협의가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짐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당사자이신 박경주 위원님이나 관련된 분들 간에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추후라도 어떤 자리에서 다루면 좋을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래서 간담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간담회 때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진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박경주 위원님 괜찮으시겠죠?

**박경주 위원** :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관 위원장** : 소리가 잘 안들리는데요.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아까 일정이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 회의 참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7.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우리 사무처도 역시 그렇게 정해도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폐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편찮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한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방역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도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꿈꾸고 있는 시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과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제315차 전체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10분 회의종료)